

전주시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집중육성

차별화된 한옥마을 야간 상설공연 ·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 · 경기전 프로그램 강화 등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전주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1000만 전주관광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한옥마을 야간상설공연, 한옥과 한복, 한지 등 전주만의 차별화된 전통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콘텐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매년 한옥마을이 지속가능한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전주한옥마을 야간 상설공연과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 경기전 콘텐츠 강화,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등 유·무형의 전통문화콘텐츠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는 올해에도 전라북도의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에 국·도비 2억 3200만원 등 총 6억여원을 투입해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야간 콘텐츠인 전주미당창극을 운영한다.

전주미당창극은 공연관람과 전통문화체험은 물론 잔치음식을 맛볼 수 있는 문화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올해 공연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수궁가'의 '용궁진지'를 재구성한 '하나 옛다 배갈라리'로 진행된다.

공연은 오는 5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전통문화관 야외마당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평일 상설공연인 (가칭) '2016 한옥마을 유유자적(悠遊自適)'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일 상설공연은 여름철인 6월부터 9월까지의 수요일에도 진행되며, 시는 전주시립예술단과 무형문화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



전북특산물 시식 지난 25일 서울 용산역 신라이피크먼트점 크리스탈게이트에서 열린 신라이피크먼트점 그랜드 오픈식에 송하진 도지사(가운데)와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전북 특산물에서 특산품을 시식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전주의 특색과 한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총 5~6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지역특화자원인 풍남문의 전통기옥 구조에 3차원의 입체적 건축미를 살린 콘텐츠를 제작한 후 건축물에 맵핑해 입체적 효과를 살린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풍남문, 빛의 웃을 입다를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오는 7월까지 매주 목·금요일 밤 9시부터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만의

특별한 문화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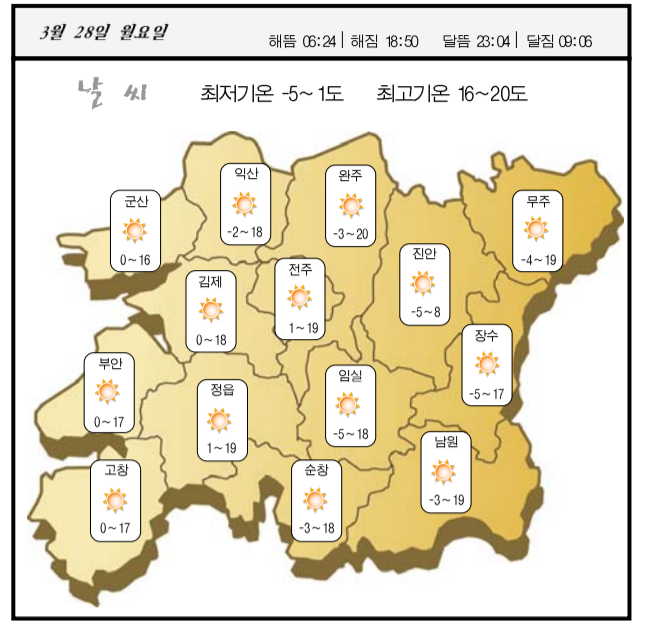
또한 시는 한옥마을 문화관광콘텐츠 확보를 위해 어르신 포도대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연수원과 한옥생태체험관, 소리문화관, 전주공예품전시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옥마을과 가까운 남부시장에서 운영 중인 청년들과 야시장은 10~20대를 중심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반드시 들려야 할 관광코스로서 인기

를 끌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추가 개발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지속 가능한 전주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시와 전북도,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방문객 수가 965만 30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있다. /김영재 기자



원광대, 대학사회책임지수 호남 1위

평균학점 3,449점 전국 11위

원광대학교가 한국사회책임에트워크 및 토마토CSR연구소에서 공동 기획한 2016 대학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평균학점 3,449점으로 전국 149개 사립대 가운데 11위를 차지하고, 호남·제주권 대학에서는 1위에 올랐다.

대학사회책임지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로 기존 성과 위주의 대학평가는 다르게 포괄적 책임 수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인 'ISO26000'에 따라 평가한 결과로 노동과 인권, 학생, 지역사회, 환경, 공정성, 거버넌스 등 7개 부문 50개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됐다.

원광대는 에너지 절약 등 환경에 관한 실천 수준, 정보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세부지표로 삼은 환경 부문과, 노사관계 등을 측정하는 노동 부문, 총장선출방식 등

을 지표로 하는 거버넌스 부문에서 A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또한, 학생 부문 B+, 지역사회 부문 B, 공정성 부문 B+ 등 인권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B 이상을 받았다.

한편, 대학사회책임지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로 기존 성과 위주의 대학평가는 다르게 포괄적 의미의 사회책임성과민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식의 대학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객관성을 위해 대학원리미, 사립대학회계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대학 공개 영역에서 최근 3년의 자료를 모아 각 대학 회람 절차를 거쳐 43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국립대학은 동일 선상에서의 비교가 어려워 사립대학과 분리됐다. /익산=정영환 기자

전북도, 특허자산 경영에 나선다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8월까지 특허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박은일,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전북도 및 전북특구의 보유특허를 전수 조사해 전북도 특허자산 경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북특구본부는 오는 8월까지 전북도 전체 특허를 특허분야별(농생명융복합, 융복합 소재부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북특구본

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허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요내용은 ▲전북도 및 전북특구의 특허 전수조사 ▲특허분야 기술분류체계(4단계) 구축 ▲기술 세분류별 특허 패키지 ▲분쟁현황 등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주요기능은 ▲전북

특허 활용 후보기업 추천 기능 ▲산업부 첨단기술제품과 전북특허간 매칭 정보 ▲기술이전 가능 특허 추천 기능 ▲대덕특구 등 타 특구 추천기술과 전북특구 특허와의 매칭 정보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특허관자인 전북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미활용 특허에 대한 후보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

고 ▲정부 R&D과제 기획시 최신 기술동향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도내에는 특허분야별 특허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사업과 유망기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술보유기관의 단편적 특허관리로 전북도 차원에서 산업발전으로 특허가 활용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도는 이번 전북도 특허분야별 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전북도 차원에서 지역 내 특허를 전북도의 보유자산으로 접근하고 지역산업발전에 활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영수 기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 23개 조직에 13억

전북도는 25일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은 시·군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영농조합법인, 농협회사법인, 지역농협) 23개소에 13억여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지원하여 농산물 운송·보관·하역·포장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갖추게 하는 사업

이다.

2015년에는 7개 시·군 19개 조직을 대상으로 1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물품과 장비는 파렛트, 플라스트릭상자, 지게차,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등이 있다.

도는 최근 농업인력과 유통장비 부족으로 인한 물류환경 악화로 농산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물류표준화 시설 지원은 농촌의 노동력 해소와 유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영수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